

백두대간 생태지도



덕유산



지리산



동물



식물



동물



식물



고속도로변 생태계 교란 식물 없애고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막는다

환경부·도로공사 생물보전 협약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야생동물 사고(로드킬·road kill)를 예방하고, 성장 위주의 도로 건설로 파괴된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이뤄진다.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 친환경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변에서 서식하는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2017년까지 57%, 2020년까지 90% 이상 제거하기로 했다.

건설회사와 자치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제초제 살포, 뿌리 뽑기 등으로 29만 4156본(약 6만㎡·지나해 기준)에 달하는 교란 식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서 키우는 노랑붓꽃, 진도랑상사화 등 멸종위기종·서식지외보전 대상을 현재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 수목원과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추가로 3만990본을 식재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2360건의 야생동물 사고가 발생했다. 수치로 보면 국내 고속도로 km 당 0.66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183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215km구간에 유도울타리를 건설하는 한편, 기존도로와 신규 노선에 생태통로 56개소를 확충해 야생동물사고를 km당 0.5건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심축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과거 개발 위주의 도로 건설로 파괴됐던 자연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조감도.

〈환경부 제공〉

지리산에 생태탐방연수원 들어선다

환경부 내년 11월까지

화염사 지구에 조성

지리산에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선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화염사 지구에 '산악형 생태탐방연수원'을 내년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일대에 연면적 3900㎡ 규모로 지어지는 생태탐방연수원에서는 백두대간의 시점인 지리산의 문화·역사·생태자원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이

이뤄지며,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 치료 시설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리산둘레길과 화염사, 반달가슴곰을 직접 볼 수 있는 종복원기술원 등 기존 시설과 생태탐방연수원이 연계된다면 체류형 탐방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1년에 북한산 도봉지구에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을 최초 건립했으며 2016년까지 설악산, 소백산에 산악형 생태탐방연수원, 한려해상에 해상·해양 생태탐방연수원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백두대간 생태지도 살펴보니

지리산은 '구상나무' 덕유산은 '가문비나무' 낙원

지리산을 찾았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반달곰, 담비 등 멸종 위기종은 아직 지리산에서 살고 있을까? 지리산에서 시작해 백두산 장군봉에 이르는 1400km 구간을 흔히 '백두대간'이라 부른다. 산림청과 녹색연합은 최근 백두대간을 10개 구간으로 세분해 각 구간의 대표 동·식물과 주요 서식지 등을 기술한 '생태지도'를 발행했다.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일반인에게 알려 자연 보호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 산림청·녹색연합 10개구간 나눠 동식물 서식처 담은 지도 발행

지난 1990년대부터 백두대간의 생태연구는 꾸준히 지속돼 왔지만, 남한 전체 권역을 세분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로부터 백두대간은 생물, 특히 산란지원의 보고였다. 가시오갈피, 세물투구꽃, 연잎경의다리 등 이름도 흔히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식물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 식물 종의 33%,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식물 중 27%, 희귀식물 중 17%가 백두대간에서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검독수리, 반달가슴곰, 수리부엉이 등 도시의 확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풍부한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백두대간 속에서 살아간다. 여의도의 310배가 넘는 26만3427ha(약 7억9686만평)에 이르는 보존지역,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 세계에서 지리산, 덕유산, 제주도 한라산 단 세곳에만 자연 서식하는 구상나무는 지리산의 대표수종이다. 우리에게

반달가슴곰·황구렁이 등

멸종위기 동물 4종도

지리산에 터 잡고 살아

크리스마스 트리로 친숙한 구상나무는 실은 국내에서만 자라는 자생식물로, 학명(Abies koreana)에도 한국(코리아)이 들어가 있다. 제석봉(해발 1800m), 여원재 등 지리산의 높고 서늘한 곳에서 살아간다. 맑은 계곡에서 살아가는 꼬리치레도롱뇽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에서 이르기까지 지리산 전역에서 관찰됐다. 멸종위기 2급인 담비는 해발 1502m 노고단 자락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달가슴곰, 황구렁이 등 멸종위기 동물 4종도 지리산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이란 뜻의 덕유산은 예로부터 무주구천동, 유추폭포 등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알려진 곳이다. 덕유산 황적봉에 오르면 가문비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깃털 모양의 잎을 지닌 가문비나무는 해발 1600m 이상 높고 추운 곳에 주로 살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신갈나무, 꽃은 철쭉꽃임이 확인됐다. 참나무과의 하나인 신갈나무는 해발 200m에서 높게는 1900m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살고 있는 교목수종이다. 침엽수 중에는 소나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당단풍나무, 분비나무 등이 백두대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로 꼽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을 오를 때 주변 동·식물을 돌아보면서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문화가 같았던 만큼, 인문학적 관점을 담은 문화 지도도 차후 제작할 계획"이라 말했다. 백두대간 생태지도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를 통해 제공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문의 222-4994, 010-2632-5659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재테크(법인인가) 관련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문의 010-4911-4989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선규 드림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20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